

“코피노 위한 버팀목이 되겠다”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 필리핀 현지에 유치원 설립 계획 발표

부산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이 필리핀에서 어렵게 생활중인 코피노들을 위한 유치원 설립에 두 팔을 걷어 올렸다. 스님은 지난 해 4월 25일 아시아공동체학교 및 뜻밖 성당과의 자매결연을 신화한으로, 10여 년 전부터 발원해온 코피노유치원을 통한 다문화운동에 돌입했다.

“우연히 필리핀에서 만난 한 코피노 소년에게 ‘커서 큰돈이 생기면 한국인 아빠를 찾아가 생으로 쓰겠다’는 말을 했어요. 충격적이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어렵고 힘든 코피노들을 위해 아빠의 나라에서, 떠난 아빠의 자리를 대신해 버팀목이 돼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코피노(Kopino)는 한국 남성(Korean)과 필리핀 현지 여성(Filipino)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필리핀에서 이르는 말이다. 코피노 중 한국인 아버지가 필리핀에 남아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상류층에 속한다. 반면 유학,

사업, 여행 등 목적으로 임시 방문했다가 무책임하게 떠나버렸을 경우 현지에 남겨진 필리핀 여성과 그 2세는 음지에 숨어 힘들게 살게 된다. 코피노는 1세대로 불리는 40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 태어난 아이들까지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필리핀 교민사회 관계자는 “스스로 코피노 입을 숨기는 경향이 강해 1만명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피노가 1만여 명 이상임에도 한국은 코피노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숨기고 싶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덮어둔다고 해서 사라질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필리핀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코피노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을 테니까요.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자피노(Japino)에게 용서를 구하며 적극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문화 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도와주며 가르쳐야 합니다.”

정산 스님은 “코피노 문제에서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

불교계는 화합과 자비, 상생을 함께 고민하고 감싸 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설립과 경전, 명상 등이 아닌 온몸으로 실천하며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필리핀 남부 바다오 지역에 설립을 추진 중인 코피노유치원은 작은 건물에 터전을 마련하

고, 훌륭한 현지 교사를 채용하는 등 물리적인 준비단계는 끝이 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도움이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을지에 관한 신중한 논의가 교민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손가정이라는 사실을 애써 숨겨왔는데 괜히 돕는다고 치부

를 드러내 상처만 줘서는 안되잖아요. 무조건 좋은 일이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피노들이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겠지요.”

당초 올해 안에 코피노유치원을 개원하려 계획했지만 좀 더 빨라질 수도 혹은 한없이 늦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님의 코피노유치원 설립이 좌초되더라도 제2, 제3의 정산 스님이 나타나 그 뜻을 이어가야 하고, 또 반드시 그러리라는 것이다.

“언젠가 코피노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빠의 나라에 언제든 오갈 수 있도록 비자를 쉽게 내어주는 등 한국 사람처럼 대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합니다.”

박지원 기자 hdbop@hanmail.net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 대광명사 사무랑심회

자비회사하니 행복이 쑥쑥

부산의 새 도심으로 급부상 중인 해운대 지역에는 유난히 이름난 사람들이 많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교양대학까지 보유한 사찰부터 은 국민에게 참선수행의 참맛을 전하는 수행 중심의 사찰, 한 시대를 풍미한 대덕 큰스님이 머문 도량 등 불자들의 신심을 더욱 뜨겁게 해 줄 훌륭한 사찰들이다. 이런 가운데 종교를 떠나 해운대구민

사무랑심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독거노인 30명에게 밀한찬 도시락을 배달하고, 같은 주 일요일에는 국군부산병원 내 군법당 모공사에서 군장병 불자를 위한 점심공양을 손수 대접하고 있다. 셋째 주 금요일에는 독거노인에게 생활물품을 전달하며, 넷째 주 화요일에는 해운대역 앞 무료급식소에서 점심공양을 나눠준다. 틈틈이 해



지난해 11월 해운대구의 '청산리'에서 내빈께 주인공으로 선정된 대광명사 사무랑심회.

모두가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이 있어 눈길을 끈다. 작년 연말 해운대구로부터 꾸준한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패를 받은 그곳은 바로 대광명사(주지 목종)와 그 신도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사무랑심회(회장 홍동익)가 그곳이다.

사무랑심회는 대광명사 불교대학 11~12기 졸업생을 중심으로 배풀어 남을 기쁘게 하는 '자비회사'를 슬로건 삼아 2007년 6월 창립했다. 사무랑심회 회원들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보시를 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창립 당시 40명이던 회원은 불교대학 과정이 배출한 졸업생 만큼 더해져 현재 61명이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사무랑심회가 지역민에게 사랑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인 휴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과 최첨단 건축물인 센텀시티 등 살기 좋은 신도시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끌어안았기 때문이다.

운대해수욕장을 찾아 청소해 온 사무랑심회는 올해부터 장산 꾸미기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회원 대부분 집안 살림을 맡은 어머니들이라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집안일과 봉사활동으로 여념 없이 바쁘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여유롭다.

홍동의 회장은 “자원봉사는 합수록 자기를 돌아보는 수양의 한 과정이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배움은 지식에 불과할 뿐이다. 지혜로서 스스로 행복하려면 반드시 자비의 실천을 해야 완전한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동의 회장은 “밀찬반배달은 앞으로 독거노인 100명까지 늘리는 한편, 해운대백병원이 개원되면 사무랑심회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계획이며 현재 봉사자접수까지 마친 상태다. 올 여름부터 해운대해수욕장이 개장하면 주말마다 청소 봉사를 나가고, 봄부터 가을까지 장산 꾸미기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화합 · 상생 모티브로 지어진 현대식 도량

안국불교대학, 3월 2일 개원 및 입학식 초입기

“안국불교대학은 안국선원 신도들만 가는 곳이요?”

“아니요. 불교를 알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순수한 신행 · 정진 공간입니다.”

부산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불교대학이 부산 도심 한가운데 문을 연다. 안국불교대학학장 무관 스님은 “안국불교대학학장이 1년여 준비를 끝내고 3월 2일 개원 및 첫 입학식을 앞두고 초입기에 들어갔다. 개원을 열흘쯤 앞두고 학장 무관 스님은 “인근 타 불교대학들과 과열 경쟁으로 치닫할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안국불교대학은 불교를 알고 싶어도 찾아가 공부할 재적자 없이 겉도는 재가불자와 일반인들에게 배움의 참기쁨을 알기도록 하기 위해 설립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



안국불교대학 학장 무관 스님

봐 달라”고 말했다. 안국불교대학은 도량 외형부터 노후콘크리트 공법으로 독특하게 지어졌다. 독특한 건축양식에는 상생과 화합이라는 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 건축한 건물답게 안국불교대학은 도서관 전산실, 화합의 홀 등을 지어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학장 무관 스님의 방문도 항상 열려 있어 누구나 스님을 찾아 상담을 나눌 수도 있다. 안국불교대학의 2층 대법당은 불

사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간이다. 대법당 중앙은 석굴암과 똑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좌우로 문수 · 보현보살을 봉안했다. 그 주위도 탱화를 대신해 부처님 십대제자를 배치했다.

“혹자는 이슬람교 예배사원인 모스크를 연상시킨다지만 안국불교대학은 화합과 상생을 표현하는 현대식 도량입니다. 건물 한가운데 화합의 홀을 마련해, 학생이 아닌 지역민 누구든지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학사과정 이외의 문화행사와 화상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해 그분들의 발걸음을 학교로 이끌어야겠지요.”

현재 불교계는 불교대학 입학생 부족을 겪고 있다. 안국불교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시민 중 60% 이상이 불자라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자로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어 왔다. 무관 스님은 불교에 대한 호감만으로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 불교의 진수를 전할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대학만의 특징은 건물 및 강의 시설의 현대화, 젊고 유능한 강사진, 포교원의 커리큘럼에 준하는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입니다. 3년 후에는 일반 대학과 다름없는 지식의 상아탑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스님은 “진실하고 화합하며 상생하자”는 건학이념을 구현해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051) 501-7554-5

박지원 기자

깨끗한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주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부산시협의회(상임대표 정여스님 · 이종석 · 정영문 · 김민숙 · 김성수, 이하 공선협)가 6·2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공명선거와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공선협은 2월 17일 광장호텔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활동을 다짐했다.

공선협의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공명정대한 선거와 매니페스토 선거 캠페인에 주력하게 된다. 또, 복잡한 선거방법에 관해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순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침권의 역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리게 된다.

수월 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 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니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이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살본願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세상은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집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년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원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 x 세로 85cm 가격 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능)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묶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 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

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 1의 법구인 금강저를 물에젼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급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당가격 별도 상담요)



호신불규격직경3.5cm, 세로4.5cm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랑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남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툴팁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 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